

特別講演

時計と李箱の「翼」

10月21日(土) 15:30～16:30

純真学園祭初日

純真学園大学1号館603教室

※入場無料

パク ジェソブ
講師 朴 載燮 教授

仁済大学校(韓国)図書館長/
純真学園大学客員教授



李 箱(イサン 이상)

1910～1937

小説や詩、エッセイなどさまざまなジャンルの文学作品をハングルと日本語で創作した1930年代を代表する作家の一人。その作品は現在も幅広い世代に愛されている。

翼(ナルゲ 날개)

李箱の代表作である小説「翼(ナルゲ날개)」は、1936年9月、雑誌「朝光」に掲載された、植民地時代の朝鮮の首都であった京城(今のソウル)を舞台に、働く妻と職を持たない夫の生活を描いた作品。深夜0時と正午という対照的な時間の軸を中心に、それをめぐって、あきらめと駆け引き、規律と罰則、監禁と自由、幻視と覚醒がめまぐるしく交錯するさまを表現する。

どなたでもご参加いただけます。

純真学園大学 国際交流推進委員会/ 学生委員会

アクセス

〒815-8510福岡市南区筑紫丘1-1-1
TEL : 092-554-1255



2017年10月21日 純真学園大学学園祭 特別講演 要旨

時計と李箱の「ナルゲ」(翼)

仁済大学図書館長/ 純真学園大学客員教授 朴 載燮

1930年代は、韓国文学のルネサンス時代といわれる。李光洙と崔南善が主導した1910年代の近代啓蒙文学、芸術としての純粹文学と社会主義の理念文学が風靡した1920年代を経て到達した1930年代の韓国文学は、創作技法の多様性、文芸誌や文学の読者層の拡大などによって、前の時代と比べて高いレベルの文学的な成果を収めたと評価されている。

李箱は、小説や詩、エッセイなど、さまざまなジャンルの文学作品をハングルと日本語で創作した1930年代を代表する作家の一人である。彼の作品は、韓国語の文法の規範や文学の慣習を破壊しており、難解だ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る。しかし、ウィットとパロッドの個性的な文体や人間の内面的な意識の探求と詳細な描写により、今日でも愛読されている。

彼の代表作である小説「翼」は、1936年9月、雑誌「朝光」に掲載された。「翼」は、植民地時代の朝鮮の首都であった京城(今のソウル)を舞台に、働く妻と無職の夫の話である。この作品で最も興味深いところは、深夜0時と正午という対照的な時間の軸を中心に小説が書かれていることである。その軸をめぐるあきらめとかけひき、規律と罰則、監禁と自由、幻視と覚醒が交錯する。ここでは、「翼」の時間を通して、30年代のモダンな京城の風景を探検する。

1930년대는 한국문학의 르네상스기라고 일컬어진다. 李光洙와 崔南善이 주도한 1910년대의 근대계몽문학, 예술로서의 순수문학과 사회주의 이념문학이 풍미한 1920년대를 거쳐 도달한 1930년대의 한국문학은 창작기법의 다양성, 문예지와 문학독자층의 확대 등으로 전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문학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중의 한 사람인 이상은 소설과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한글과 일본어로 창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소설 <날개>는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의 작품들은 한국어의 문법적 규범이나 문학적 관습들을 파괴하고 있어 난해하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위트와 패러독스의 개성적인 문체, 인간 내면의식의 탐구와 묘사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애독되고 있다.

1936년 9월 잡지<조광>에 실린 소설<날개>는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을 배경으로 직업을 가진 아내와 무직자인 남편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정과 정오라는 대립적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둘러싸고 순응과 보상, 규율과 처벌, 감금과 자유, 환시와 깨달음이 종횡으로 교직된다 본고에서는 <날개>의 시간을 통해 30년대 모던한 경성의 풍경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